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남·녀 대학생의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진희

최연실[†]

상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학생들의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충청지역의 대학생 54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SPSS Ver.18.0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남·녀 대학생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은 대인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대학생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와 대인불안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탄력성이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기 집단 괴롭힘 경험에 대한 개인상담 방안을 구축하고 나아가 가족상담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청소년기,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대인불안감, 가족탄력성

* 본 연구는 서진희(2015)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서울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02-2287-5114 / E-mail: yschoi@smu.ac.kr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자율적인 생활과 심리적인 독립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며, 보다 폭넓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낯선 사람들과의 잦은 만남, 대학교 내에서의 그룹 참여나 발표 활동 등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낯선 사회적 상황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Shepherd, 2006),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특히 대학생의 대인불안은 진로, 학업, 성격형성, 자아정체감 확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혁근, 1992; 송은혜, 2006; 이시형, 김형태, 이성희, 1987).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인불안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낯선 사회적 상황과 같이 친숙하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될 때 발생한다. 하지만 과도한 대인불안감은 전혀 위협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Turner et al., 1986).

위에서 언급한 대인불안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는 집단 괴롭힘 경험, 부정적 사고, 사회적 기술 부족, 불안에 대한 과장된 해석, 낮은 자아 존중감 등이 있다(최명심, 2000). 송명자(1995)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은 초기 성인기로 진입한 대학생들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인관계를 단절시키며, 대학생에게 고립감을 느끼면서 대인불안감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에 따른 피해는 한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인기로 이어져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Ambert, 1994).

대학생의 대인불안감의 주요 원인인 집단 괴롭힘에 대한 한 매체의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비율은 46.7%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연합뉴스, 2012),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을 한 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학생들의 비율은 2011년 38.9%, 2012년 49.3%, 2013년 56.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청예단, 2014). 이를 통해,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학생의 심리적인 고통이 과거에 비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남학생들에게는 폭력적인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고, 여학생들에게는 언어를 이용한 괴롭힘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된다(이지현, 2006; Olweus, 1994).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볼 때, 성별에 따라 다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대인불안감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면, 가족탄력성, 가족의 지지, 가족의 기능은 이러한 고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노필순, 2005; 배경의, 김은하, 2007; 정영이, 2004). Walsh(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역, 2002)는 집단 괴롭힘과 같은 위협적인 삶의 문제들은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집단 괴롭힘을 경험하고서도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송자경(2003)은 가족탄력성, 가족적응, 가족스트레스와 간질 아동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를 조절한다고 밝혔으며, 강효경(2011)은 가족탄력성은 스

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의 강점을 기초로 하여 가족의 적응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대상자들이 높은 가족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로 그 연구 영역이 개인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대인불안감과 같은 개인의 삶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으로 남·녀 대학생의 대인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가족탄력성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 가족형태, 경제상태를 설정하고, 집단 괴롭힘과 관련해서 경험시기, 경험유형, 지속기간, 전문적 상담경험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 집단 괴롭힘은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남학생들은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괴롭힘을, 여학생들은 언어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따돌림을 주로 경험한다(이지현, 2006; Olweus, 1994). 김용태와 박한샘(1997)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동조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혜원(2011)은 청소년기에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대인불안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오경자와 양윤란(2003)은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발생한 대인불안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 괴롭힘은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 특히 결손가정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집단 괴롭힘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가우디, 1999), 집

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일본 학생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의 자녀들일수록 집단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Nashiyama, 1996). 또한 집단괴롭힘은 가족형태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김미영, 2007; 박종원, 2005; 조운오, 2013; Olweus, 1994).

집단 괴롭힘의 유형은 가해·피해에 따라서 심리적인 특성에 차이가 나타난다(이춘재, 광금주, 1999; Boulton & Smith, 1994; Lane, 1989; Olweus, 1984; Olweus, 1994). 이러한 집단 괴롭힘에 관한 다양한 경험들은 특정한 시기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Macklem(황혜자, 김종운 역, 2006)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단 괴롭힘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예성과 김광혁(2008)은 이러한 집단 괴롭힘 현상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중학교 시기라고 밝혔다. 더불어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후, 그에 대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집단 괴롭힘의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가 있다(양해남, 2007; 정영이, 2004). 하지만 개인적 개입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집단 괴롭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집단 괴롭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거나 집단 괴롭힘 피해아동과 가해아동의 특성이나 사회 심리적 변인과 문제형태를 분석하였다(김원중, 2004; 김은경, 이정숙, 2008; 김혜원, 2011; 박소현, 2005; 이은경, 김병석, 2012; 이춘재, 광금주, 2000). 또한 대인불안감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커플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또래의 집단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등

사회불안, 사회공포증에 초점을 맞춰왔다(강은숙, 2005; 김남재, 2000; 김연옥, 2005; 문혜신, 2001; 양윤란 외, 2008; 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한편, 그 외의 가족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강효경, 2011; 김고은, 2006, 김미옥, 2001; 신미숙, 2013; 홍정애, 2007). 하지만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이 초기 성인기의 남·녀 대학생들의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으로 인한 대인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대학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주로 심리적인 독립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Shepherd, 2006). 가족탄력성이 가족의 강점을 찾아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회복하는 원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Walsh, 1998; 양옥경 외 역, 2002)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가족탄력성을 대인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조절변인으로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전략 개발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목적 설정하였다.

첫째,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구한다.

둘째,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대인불안감의 관계에서 가족탄

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해 본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달성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남·녀 대학생에게 미치는 대인불안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대인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통해 대학생 내담자와 그 가족에게 내재되어 있는 강점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족상담 및 치료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제시와 더불어 가족상담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환경의 대학생들을 표집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2개 대학, 충청지역 소재 1개 대학에서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의 남·녀 대학생 총 6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 9월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설문을 진행하였다. 집단 괴롭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중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총 545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집단 괴롭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지와 분석에 필요한 문항에 답하지 않은 설문지, 불성실하게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45

구 분		빈도(비율)	구 분		빈도(비율)
성별	남	218(40.0)	가족 형태	핵가족	448(82.2)
	여	327(60.0)		확대가족	47(8.6)
연령	20세 이하	157(28.8)		한부모가족	43(7.9)
	21 - 25세	354(65.0)		조손가족	5(0.9)
	26세 이상	34(6.2)	기타	2(0.4)	
평 균		22.06	상	14(2.6)	
학년	1학년	196(36.0)	경제 상태	중상	92(16.9)
	2학년	141(25.9)		중	288(52.8)
	3학년	132(24.2)		중하	126(23.1)
	4학년	76(13.9)		하	25(4.6)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집단 괴롭힘 관련 배경 변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연령, 가족형태, 경제상태를 설정하고,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요인으로 는 경험시기, 경험유형, 지속기간, 전문적 상담경

험으로 결정하여 총 7가지 문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집단 괴롭힘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관련 변인의 특성

N=545

구 분		빈도(비율)	구 분		빈도(비율)
경험 유형	피해	362(66.4)	지속 기간	1년 미만	95(17.4)
	피해+가해	40(7.3)		1년 - 3년	109(20.0)
	피해+목적	133(24.4)		3년 - 4년	243(44.6)
	피해+가해+목적	10(1.8)		4년 이상	98(18.0)
경험 시기	중	453(83.1)	평 균		33.69
	고	40(7.3)	상담 경험	1년 미만	95(17.4)
	중+고	52(9.5)		1년 - 3년	109(20.0)

주: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13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기를 설정하였기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시기에 집단 괴롭힘 경험을 한 대상자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 괴롭힘 경험시기를 학교경험에 국한하였다.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본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최은숙(1999)이 제작한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행동에 관한 설문지 중 집단 괴롭힘 피해항목의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1점)부터 '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5점)까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 상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점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의 점수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 괴롭힘 피해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1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총 1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 피해척도를 3개의 하위요인별로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체점수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외한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척도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

본 연구에서는 대인불안 척도로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인불안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Leary(1983)의 대인관계불안척도를 김남재(1995)가 변안한 한국판 IAS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완벽하게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한 설문 총 15문항 중 3, 6, 10, 15번의 4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이 척도의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인불안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ixbey(2005)가 Walsh(1996)의 가족탄력성 이론에 맞게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FRAS)을 신미숙(2013)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5점에서 180점까지 분포가 가능하다. 이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 척도 45문항의 질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저해하는 4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41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의 3개 하위요인별로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체 점수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탄력성 척도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 18.0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의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이 경험한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 피해정도와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남·녀 대학생에 따라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집단 괴롭힘 피해정도,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남·녀 대학생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남·녀 대학생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정도와 대인불안감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남·녀 대학생에 따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주요 변인별 남·녀 대학생 간의 차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가족탄력성($t=2.77, p<.01$)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반면,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t=-3.66, p<.001$)과 대인불안감($t=-3.73, p<.001$)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 모두 상관계수가 0.8 이하로 파악되었으며, 각 변수들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결 과

남·녀 대학생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본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이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

표 3. 남·녀 대학생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N=545

측정변인	남자					여자					t값
	최대값	최소값	M (SD)	왜도	첨도	최대값	최소값	M (SD)	왜도	첨도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14	58	2.31 (0.81)	.86	-.11	14	56	1.87 (0.78)	1.28	1.36	-3.66***
가족탄력성	54	146	2.61 (0.52)	-.06	.51	63	152	2.74 (0.50)	-.01	-.18	2.77**
대인불안감	15	65	2.76 (0.63)	.06	.45	15	68	2.56 (0.63)	.36	.38	-3.73***

** $p<.01$, *** $p<.001$

본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들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파악한 분석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종속변수인 대인불안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36, p<.01$). 이는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대인불안감이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적 가설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r=-.41, p<.01$)은 종속변수인 대인불안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가족탄력성이 또 다른 독립변수로서 조절변수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배경변인 중 대인불안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수는 집단 괴롭힘 경험유형 가변수 1($r=-.08, p<.05$)과 집단 괴롭힘 경험시기 가변수 2($r=.20, p<.01$)로 나타났다.

표 4. 남자 대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218

	괴롭힘	탄력성	대인 불안
괴롭힘	1		
탄력성	-.48**	1	
대인불안	.36**	-.41**	1

* $p<.05$, ** $p<.01$

표 5. 여자 대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327

	괴롭힘	탄력성	대인 불안
괴롭힘	1		
탄력성	-.45**	1	
대인불안	.32**	-.48**	1

* $p<.05$, ** $p<.01$

즉 중·고등학교시기에 연속적으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을 갖고 있는 남학생들은 대인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여학생 집단에서도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인들 모두 상관계수가 0.8 이하로 파악되었으며, $p<.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종속변수인 대인불안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r=.32, p<.01$). 이는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대인불안감이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적 가설과 일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r=-.48, p<.01$)은 종속변수인 대인불안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조절변수로서의 영향력을 반영해주고 있다.

모형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남·녀 대학생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가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리커트(Likert)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이후의 위계적 회귀분석의 모델을 비교하여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때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이 10을 초과하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의 분산팽창계수의 값이 10.797이었으며, 가족탄력성의 VIF의 값이 24.95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표준화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렇게 표준화한 새로운 변수들로 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분산팽창계수의 값이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화한 변수를 이용하여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앞에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했으므로, 여기서는 2단계와 3단계의 결과만 제시하도록 한다. 남·녀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델 1은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을 투입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대한 설명력은 26.0%로 나타났으며, $F=6.02$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 모델의 통제변수는 대인불안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집

단 괴롭힘 피해경험($\beta=.21, p<.01$)은 대인불안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beta=-.28, p<.001$)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2.1%로 나타났으며, $F=7.43$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모델의 통제변수는 대인불안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beta=.55, p<.001$)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beta=-.19, p<.05$)은 모두 대인불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에서는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인 대인불안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대인불안감에 대하여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을 투입한 모델 3의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F=8.99, p<.001$). 이 모델의 통제변수는 대인불안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beta=.13, p<.05$)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beta=-.4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모델 4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6.7%로 나타났으며, $F=13.95$ 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모델의 통제변수에서는 연령($\beta=-.09, p<.05$)이 부적으로

표 6.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구 분	남자 대학생(N=218)				여자 대학생(N=327)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상수)	3.08		3.10		4.53		4.38		
연령	.01	.05	.01	.03	-.03	-.09	-.03	-.09	
가족형태	.01	.01	-.01	-.01	.04	.05	.06	.06	
경제상태	-.06	-.08	-.04	-.06	-.03	-.04	-.03	-.04	
경험유형1	-.26	-.11	-.18	-.08	-.04	-.02	-.05	-.03	
경험유형2	.11	.07	.11	.08	.05	.03	-.01	-.01	
경험유형3	.55	.12	.44	.09	-.17	-.04	.02	.01	
경험시기1	.08	.03	.07	.03	.07	.03	.02	.01	
경험시기2	.18	.08	.22	.10	-.01	-.01	.02	.01	
지속기간	.01	.03	.01	.05	-.01	-.02	.01	.03	
상당경험	.19	.07	.16	.06	.14	.04	.03	.01	
독립 변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16	.21**	.42	.55***	.10	.13*	.52	.64***
조절 변수	가족탄력성	-.34	-.28***	-.23	-.19*	-.53	-.42***	-.34	-.27***
상호작용 변수	피해경험×가족탄력성			-.14	-.40***			-.23	-.58***
Adjusted R^2		.260		.321		.256		.367	
F		.217		.278		.227		.341	
		6.02***		7.43***		8.99***		13.9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통제변수 중 경험유형1(피해+가해=1, 피해경험=0), 경험유형2(피해+목격=1, 기타=0), 경험유형3(피해+가해+목격=1, 기타=0), 경험시기1(고등학교=1, 중학교=0), 경험시기2(중+고=1, 기타=0), 상당경험(있음=1, 없음=0)은 가변수화(dummy variable)하여 분석하였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여자 대학생들 연령이 낮을수록 대인불안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beta=.64, p<.001$)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beta =-.27, p<.001$)은 대인불안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항에서는 독립변수인 집단 괴롭힘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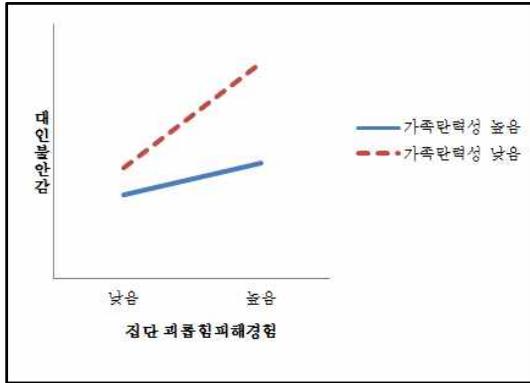


그림 1.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학생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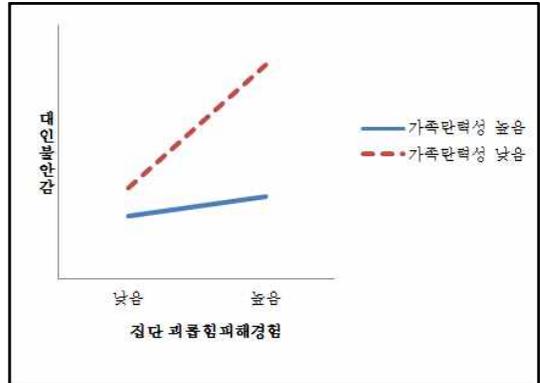


그림 2.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학생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해경험과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인 대인불안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58, p<.001$). 이는 여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대인불안감의 영향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은 대인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남자 대학생들의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남학생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탄력성이 조절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이 그래프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가족탄력성이 낮은 집단을 설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가족탄력성이 남학생의 대인불안감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족탄력성이 남자 대학생의 대인불안감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위의 결과를 토대로 여자 대학생들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가족탄력성이 낮은 집단을 설정하여 얻어진 회귀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그래프이다. 그 그래프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높아도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져 대인불안감을 낮출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족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곧 가족탄력성이 여자 대학생의 대인불안감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에 따라 집단 괴롭힘의 피해경험, 가족탄력성, 대인불안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여학생들보다 높게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이지현, 2006; Olweus, 1994). 하지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대인불안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되지 않는 결과이다(양윤란 외, 2008); 오경자, 양윤란, 2003).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기에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남학생들은 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이지현, 2006) 남자 대학생이 더 높은 대인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가족탄력성은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alsh(1996)가 말하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체계(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중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Tannen(1990)에 따르면, 남성은 사실을 교환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여성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대인불안감 또한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불안감의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오경자, 양윤란, 2003)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대인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남성상으로 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주도적인 역할(예: 수업과정에서의 발표, 팀 과제, 데이트, 취업 면접 등)을 해야 한다는 문화적인 인습에 따른 압박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은 남·녀 대학생의 대인불안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은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능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혜진(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타인으로부터 거부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는다는 이지현(2006)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뿐만 아니라 경험유형과 경험시기 또한 대인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청소년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남학생들은 대인불안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은 성인기로 이어져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오경자, 양윤란, 2003; 조현영, 2010; Ambert, 1994)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 경험은 초기 성인기로 전환되는 대학생들에게 대인불안, 부부관계 문제, 직업 부적응 등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조현영, 2010). 따라서 대학생들의 대인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성별이나 집단 괴롭힘 경험유형이나 경험시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여자 대학생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인불안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인불안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뚜렷해진다는 선행연구들(오경자, 양윤란, 2003; 조현영, 2010; Rao et al., 2007)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지만, 청소년기에는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동조성향이 강하다는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들은 청소년기에 남학생보다 집단 괴롭힘 동조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보다 더 많은 집단 괴롭힘(예: 피해경험, 가해경험, 목격경험)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인 단계인 대학생 시기에 들어서면서 여학생들은 크게 낮아졌던 자아존중감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한다(Marcia, 1980). 따라서 동조성향의 영향력 감소와 자아존중감의 발달로 인하여 여학생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대인불안감이 낮아질 것이다.

셋째, 남·녀 대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대인불안감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은 조절효과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탄력성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족탄력성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크기와 강도를 현저하게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송자경(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족의 문제해결과 스트레스 간에 가족탄력성이 완충효과가 있다는 강효경(2011)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집단 괴롭힘이 대학생의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은 대인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을 한 남·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족탄력성이 대인불안감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그들이 대인불안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예: 발표불안, 대인관계 불안 등)들로부터 벗어나 성인기의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탄력성은 대인불안 등에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족구성원과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통해 남·녀 대학생이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진 설문자료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반응태도에 의해 왜곡되게 기재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올바르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기에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을 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탄력성 측정도구는 Sixbey(2005)가 미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척도를 신미숙(2013)이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것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가족탄력성을 보다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교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가족탄력성을 단순화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의 하위영역별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다면, 대학생 내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집단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향후 집단 괴롭힘 대한 가해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로 확장된다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초기 성인기까지 미치는 영향, 특히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의 대인불안감에 대해 영향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생, 군인, 사회 초년생 등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초기 성인기에도 집단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 가족탄력성은 단순히 가족의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안녕감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남·녀 대학생에게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별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가족탄력성의 향상을 위해 가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진행함에 있어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상담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대학생의 대인불안감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가족탄력성에 대한 가족상담사와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족상담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가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가우디 (1999). 왕따 실태, 원인에서 해결까지: 왕따 리포트. 서울: 우리교육.
 강은숙 (2005). 남·녀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사회불안이 커플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문, 서울여자대학교.
 강효경 (2011).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김고은 (2006).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남재 (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78-81.
 김남재 (2000). 대인불안과 사회적 자기 불일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73-483.
 김미옥 (2001). 장애아동의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47, 34-70.
 김연옥 (2005).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사회적 기술, 대인불안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김예성, 김광혁 (2008). 초등학교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1), 65-97.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김원중 (2004). 왕따: 의미, 실태, 원인에 관한 종합적 고찰. 상담학연구, 5(2), 451-472.
 김은경, 이정숙 (2008).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23-134.
 김혁곤 (1992).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김혜원 (2011).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18(5), 321-356.

- 노필순 (2005).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소현 (2005). 집단따돌림 가해·피해와 보복심리: 집단따돌림의 유형과 성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배경의, 김은하 (200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가족 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3), 357-366.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은혜 (2006). 애착, 대처방식, 희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송자경 (2003). 간질아동과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통정감과 가족강인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미숙 (2013). 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과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양해남 (2007). 초등학교 저학년 집단 괴롭힘 피해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석사학위논문, 극동대학교.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77-597.
- 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 개념과 정서조절곤란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9(1), 75-89.
- 오인수 (2010).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전학교 접근. 상담학연구, 11(1), 303-316.
- 이시형, 김형태, 이성희 (1987). 사회공포증의 유형별 임상고찰. 신경정신의학, 26(3), 517-524.
- 이은경, 김병석 (2012). 개인과 가족 차원의 보호요인이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의 적응도 변화경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2), 725-743.
- 이지현 (2006).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춘재, 광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 임형섭 (2012. 01. 06.). 대학생 46%, 살면서 왕따 겪어봤다. 연합뉴스. <http://yonhapnews.co.kr/0005455295>.
- 정영이 (2004). 집단 괴롭힘 피해 초등학생을 위한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조운오 (2013).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155-179.
- 조현영 (2010).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간의 관계: 또래 애착의 매체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조혜진 (2003). 또래 괴롭힘의 피해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청예단 (2014).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예단.
- 최명심 (2000). 주장성 훈련이 아동의 대인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최은숙 (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홍정애 (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Ambert, A. (1994). A qualitative study of peer abuse and its effect;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119-130.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 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3), 315-329.
- Lane, D. A. (1989). Bullying in school: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51, 964-980.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Macklem, G. L. (2006). 학교 따돌림의 지도와 상담: 여러 나라의 연구사례 {*Bullying and teasing: Social power in children's groups*}. (황혜자, 김종운 역). 서울: 동문사(원전은 2003년에 출판).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 159-187.
- Nashisyma, A. (1996). Among friends: The seductive power of bullying. *Japan Quarterly*, 43, 51-57.
- Olweus (1984). Aggression and their victims; Bullies at school. In N. Frude & H. Fault(Eds.), *Disruptive behaviors in school* (pp.97-130). New York; Wiley.
- Olweus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4, 1171-1190.
- Rao, P. A., Beidel, D. C., Turner, S. M., Ammerman, R. T., Crosby, L. E., & Sallee, F. R. (2007).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Descriptive psychopatholog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6), 1181-1191.
- Shepherd, R. M. (2006). Volitional strategies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Quarterly*, 9(4), 77-86.
- Sixbey, M. T. (2005). *Development of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 to identify family resilience*.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Florid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Florida.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Men and women in conversation*. New York: Morrow.
- Turner, S. M., Beidel, D. C., Dancu, C. V., & Keys, D. J. (1986).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and comparison to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4), 389-394.
- Walsh, F.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 Walsh, F.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역). 서울: 나남출판(원전은 1998년에 출판).
- Walsh, F.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원고 접수일 : 2015. 12.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6. 02. 16.
게재 결정일 : 2016. 02. 16.

The Influence of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in Adolescence on the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ocial Anxiety: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Seo, Jin- Hee

Choi, Youn-Shil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in adolescence on the social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in adolescence and the social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a total of 545 students from th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ial region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anxiety depending on gender. Second, the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was found to affect the social anxiety of the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ird, the family resilience was found to have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in adolescence and social anxiety of the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validated that the family resilience was an important factor in overcoming the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provided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family counseling service and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with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in adolescence.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adolescence,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social anxiety, family resilience